

##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과서의 '소비생활' 영역분석

강 기 은\*(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이 연 속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과서의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 실과 5학년의 '용돈관리하기', 6학년의 '자원활용하기' 단원과 중등 기술·가정 8학년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단원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목표, 교육내용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가정과학 3종 교과서별로 '소비생활' 영역의 3개 중영역 '가정자원관리', '가정경제의 설계', '소비자 역할과 보호' 등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체제와 지도내용을 분석하여 새 교과서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차기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내용분석법과 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3종 교과서의 전체쪽수는 평균 292쪽이며, 소비생활 영역의 전체쪽수는 평균 46쪽이다. 목차순서는 단원→주제→소주제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는 평균 3개씩이다.

둘째, 소비생활 영역의 단원별 체제는 크게 단원의 도입, 주제의 전개, 단원정리의 3단계로 구분되어, 전체적 흐름은 비슷하였으나 교과서에 따라 특색 있는 학습체제를 보였다.

셋째, 소비생활 영역의 집필자 구성을 살펴보면 평균 7명이고, A교과서는 각 단원별 저자를 대학교수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을 골고루 배분하였으나 B교과서는 대학교수들의 참여(8명)가 고등학교 교사 1명보다 더 많고, C교과서는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없는 고등학교 교사들만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영역별 평균비중은 '의생활(25.6%)'이 가장 높고 식생활(23.6%), 주생활(18.4%), 소비생활(16.8%), 가족생활(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영역의 구성비중은 A교과서가 18.0%로 가장 높고, C교과서(16.7%), B교과서(15.7%)의 순이다. 또한 소비생활 영역 중에서 '가정자원관리(35.3%)'가 비중이 높았고, '가정경제의 설계(32.7%)', '소비자 역할과 보호(31.9%)'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비생활 영역별 학습활동, 교수·학습보조자료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습활동보다는 교수·학습보조자료를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주제내용에 있어서, A·B교과서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교과서별로 그림은 A교과서가, 사진과 표의 수는 C교과서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외형상 체제의 현저한 변화가 있어 그림, 사진, 도표 등 자료가 지면에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일곱째, 소비생활 영역의 중단원별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흥미를 유도하고 있으나, 개념적 설명에만 머물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중심학습 내용이 요구된다.